

발달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전민영*, 박혜연**

*하상장애인복지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 변인(연령, 교육수준, 종교, 취업유무), 자녀 변인(연령, 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자녀수), 아버지 변인(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수입, 양육 참여정도)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 사설 기관, 병원 등 특수치료 관련기관 11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의 어머니 190명이었다. 발달장애아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Index(PICCI)'를 사용하였고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 Scale'를 사용하였다.

결과 :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각 측정 도구의 중간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녀의 장애 정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였다.

결론 :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자녀의 장애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 자녀발달을 위한 치료와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장애아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아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발달장애아, 양육 참여도, 양육 효능감

I. 서 론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산업 재해 등으로 선천적 장애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장애아의 사망률 감소와 교통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 역시 장애아 증가의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총 2,283.8천명이며, 인구 100명당 장애인이 출현할 확률은 4.59%인 것

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통계와 비교해 약 83만 4천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출현율도 1.5% 증가하였다. 그 중 19세 이하의 장애아는 약 96,246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4.2%를 차지하였고, 출현율은 1.96%로 추정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러한 장애인의 증가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고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장애인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간은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인 만큼 장애인 자신 뿐 아니라,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에 대

한 관심 역시 필요하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특별한 욕구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경우 독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김미옥, 2001). 가족 가운데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장애 자녀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장애 자녀의 특수성에 따른 돌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등 이중 부담을 갖게 된다. 장애아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고,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신체 및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대부분 양육의 책임이 있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더불어 가사노동의 증가로 신체적 피로감을 증대화시켜 개인생활의 부족과 함께 정체감 상실을 초래하게 되고(박정모와 김은주, 2004),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적 자각증상 뿐 아니라 만성적 우울, 불안 등에 시달리게 된다(문진하, 1994; 서소희, 1994). 또한, 양육과 치료,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문정희, 1994), 이러한 스트레스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이삼연, 1996), 부모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역기능적 양육 행동을 증가시켜, 장애 자녀와 부모 관계의 어려움이 상호 순환적으로 반복되도록 만든다(김희경, 2006; 이한우, 2002).

그러나 장애아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들은 사회적 지지, 즉 개인이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적 도움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 체계 중에서도 부부 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원 체계로 연구되고 있다. 아버지에 의해 제공되는 지지는 어머니의 대처 능력을 증가시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나 이와 관련된 신체 증상을 감소시킨다(홍영수와 김재엽, 2003; Thoits, 1986). 아버지의 지지 중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자녀의 성역할,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증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이정순, 200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효용, 2006). 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은 장애아 가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장애아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달리 활동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뿐 아니라 거

시적인 시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이며 아동의 사회적, 운동 능력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규옥, 한성희와 박혜준, 2010; Wallander, Varni, Babani, Banis, & Wilcox, 1989). 즉 과중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아 어머니들에게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장애아의 교육과 재활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부간에 일치감을 느끼게 하여 결혼 생활의 질과 기능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높은 결혼 적응은 양육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 적응에 큰 기여를 하므로(Knauth, 2001), 아버지의 참여는 장애아 양육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Bornstein et al., 1998). 이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은 Bandura(1986)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다.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은 양육 효능감을 아동 발달과 관련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Gross, Rocissano와 Roncoli(1989)는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 및 훈육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최형성, 2002).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Johnson & Mash, 1989).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 행동을 보여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Teti & Gelfand, 1991). 양육 효능감

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사고와 대처능력으로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더 유능하게 다루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였다(양성화, 2002).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등의 어머니 변인과 자녀 성별과 연령 등의 자녀의 변인이 제시되었다(문혁준, 2005; 신숙재, 1997). 또한 배우자 변인 중 남편의 육아 협조는 다른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보다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연구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숙재, 1997). 이렇듯 비장애아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그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 장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양육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는 어떠한가?
- 2)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어머니 변인(연령, 교육 수준, 종교, 취업유무), 자녀 변인(연령, 성, 자녀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아버지 변인(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수입, 양육 참여 정도)과 관계가 있는가?
- 3)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 중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인을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하의 중증 발달장애(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머니 190명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 사설 기관, 병원 등 특수치료 관련기관 11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들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발달 장애아 아버

지의 연령은 40세 이상(49.6%)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은 35세에서 40세 미만(40.0%)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4.2%,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5.7%였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3.7%,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6.3%였다. 종교는 아버지의 경우 기독교 24.7%, 불교 10.0%, 천주교 8.9%, 종교 없음 51.6%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기독교 34.7%, 불교 13.7%, 천주교 11.1%, 종교 없음 37.9%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이 19.5%, 사무직과 판매직이 각각 17.4%, 행정 및 관리직 16.3%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비취업모가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취업모는 17.9%였다.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9.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5.8% 순이었다.

장애 자녀는 남아가 67.4%, 여아가 32.6%였으며, 연령은 만 4-7세 미만이 41.1%, 만 7-10세 미만이 27.9%, 만 1-4세 미만이 23.7%였다. 자녀수는 2명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장애 유형은 뇌성마비가 48.4%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 32.6%, 정신지체 18.9% 순이었다. 장애 정도는 1급이 45.8%로 가장 많았고, 2급은 22%, 3급과 기타 등급이 각각 15.8%로 구분되었다(표 2).

2. 연구 도구

1)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

발달장애아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adin(1994)의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Index(PICCI)를 기초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문항을 변안, 수정한 이숙현(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책임감(직접 참여)’ 4문항과 ‘사회화 책임(간접 참여)’ 4문항, 그리고 ‘일상생활 접근 가능한 참여(가용성)’에 관한 질문 4문항,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 책임감과 사회화 책임, 아버지의 일상생활 접근 가능한 참여(가용성)에 관한 질문은 ‘자주 한다(1)’, ‘가끔 한다(2)’, ‘거의 하지 않는다(3)’의 3점 척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각각 4-12점이다. 총 양육참여는 세부 3영역 12문항의 총합이며, 점수 분포는 12-36점이다. 점수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79 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부모)의 일반적 특성

(N=190)

변 인	분 류	빈도(%)	
		아버지	어머니
연령	35세 미만	42(15.9)	61(32.1)
	35 - 40세 미만	60(37.5)	76(40.0)
	40세 이상	88(49.6)	53(27.9)
교육수준	고졸 이하	49(25.7)	69(36.3)
	대졸	115(60.5)	108(56.8)
	대학원 졸	26(13.7)	13(6.8)
직업	기독교	47(24.7)	66(34.7)
	천주교	17(8.9)	21(11.1)
	불교	19(10.0)	26(13.7)
	없음	98(51.6)	72(37.9)
	기타	9(4.8)	5(2.6)
직업	전문직	37(19.5)	9(4.8)
	행정 및 관리직	31(16.3)	1(0.5)
	사무직	33(17.4)	3(1.6)
	판매직	33(17.4)	7(3.7)
	서비스직	11(5.8)	4(2.1)
	생산·단순직	12(6.3)	4(2.1)
	무직	6(3.2)	155(81.6)
수입	기타	27(14.2)	6(3.2)
	100만원 미만	5(2.6)	
	100-200만원 미만	24(12.6)	
	200-300만원 미만	56(29.5)	
	300-400만원 미만	49(25.8)	
	400-500만원 미만	29(15.3)	
	500만원 이상	27(14.2)	

2)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Scale을 신 숙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SOC는 모두 16 문항인데,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9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측정하는 4문항,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그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정문으로 된 2문항을 역채점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9-45점이다. 양육 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는 스스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 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도구의 신뢰도,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 질문지 작

표 2. 연구 대상자(장애 자녀)의 특성

(N=190)

변 인	분 류	빈도(%)
자녀 성	남	128(67.4)
	여	62(32.6)
자녀 연령	만 1-4세 미만	45(23.7)
	만 4-7세 미만	78(41.1)
	만 7-10세 미만	53(27.9)
	만 10세 - 12세 이하	14(7.4)
자녀 수	1명	57(30.0)
	2명	105(55.3)
	3명	2(14.8)
장애유형	정신지체	36(18.9)
	자폐장애	62(32.6)
	뇌성마비	92(48.4)
장애정도	1급	87(45.8)
	2급	42(22.1)
	3급	30(15.8)
	기타	30(15.8)

성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잘 이해되지 않거나, 추상적인 단어는 구체적인 단어로 수정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 병원, 사설 기관 11곳에 다니고 있는 중증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008년 2월 11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직접 방문과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 320부를 배포한 후, 239부를 회수하였으나, 장애아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와 발달장애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의 경우(예, 청각장애, 미등록 장애)등을 제외한 190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유의수준 $\alpha=.05$ 로 정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각 변인별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연구 대상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평균 점수는 24.40 점, 문항평균점수는 2.03점으로 나타났다. 3점 척도 문항이므로 발달 장애아 아버지는 ‘가끔 한다’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28.10점, 문항평균점수는 3.12점이었다. 5점 척도였으므로 어머니들의 양육 효능감은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3).

2. 발달 장애아 어머니, 자녀, 아버지 특성과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발달 장애아 어머니, 자녀, 아버지 변인과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변인이 등간 척도인 경우에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독립 변인이 서열 척도인 경우에는 Spearma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어머니 변인 중 교육 수준만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5$). 즉,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았다. 자녀 변인 중 자녀수와 장애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p<.01$), 장애아의 장애가 경한 경우($p<.001$),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았다. 아버지 변인 중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만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높았다.

3.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인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종속 변인으로,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어머니, 자녀, 아버지 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어머니의 교육 수준, 자녀수, 자녀의 장애 정도,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를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자녀 변인 중, 장애 정도는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녀의 3급의 장애 정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였다. 즉, 자녀의 장애 등급이 3급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장애 1급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13%를 설명하였다($p<.001$). 어머니의

표 3.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N=190)

내용	범위	M ± SD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12점-36점	24.40 ± 5.00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9점-45점	28.10 ± 4.53

표 4.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과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N=190)

	어머니 변인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취업여부
양육 효능감	-.03	.22 [*]	.11	.00
	자녀 변인			
	성	연령	수	장애유형
양육 효능감	.09	-.07	.24 ^{**}	.14
	아버지 변인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직업
양육 효능감	-.11	.11	-.02	.03
				수입
				양육 참여도
				.61 ^{***}

* $p<.05$ ** $p<.01$ *** $p<.001$

표 5.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190)

독립변인	β	R2	F
자녀 변인			
장애정도 ¹⁾ 3급	3.01*	.09	4.24**
아버지 변인			
양육 참여도	.26**	.13	6.36***

1) : 장애 등급 1급을 기준으로 더미 변수를 생성한 것

교육 수준, 자녀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특수치료 관련기관 11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발달 장애아를 둔 어머니 190명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 자녀, 아버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자녀 양육 참여도 중 어느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끔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던 이숙현(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점수(23.77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참여도라 할 수 있다. 장애아 아버지의 경우, 장애아의 특수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감 등으로 비장애아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가 요구되는데 비해,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장애아 아버지들이 장애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양육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장애아의 치료와 특수 교육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생계유지 역할에 몰입하게 되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장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치료 바우처 제도’와 같은 교육, 의료 보험 시스템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했던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 효능감의 평균 점수(31.5점)보다는 낮은 점수였다.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수준이 중간 이하의 수치를 보였던 김희경(2006)의 연구나 정서장애아 어머니가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낮은 양육 효능감을 나타냈던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와 최상용(2003)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 장애아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일반 아동의 어머니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일반 아동과는 다른 장애 자녀의 양육, 교육 방식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부담감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 대상 어머니의 장애 자녀가 뇌성마비나 자폐증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은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장애자녀가 많은 점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낮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달 장애아 어머니에게 장애아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복지사, 치료사, 상담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와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어머니의 역할을 분담해 잠시라도 장애 자녀의 보호와 돌봄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봉사 서비스, 탁아 서비스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녀의 장애 정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였다. 즉, 장애아의 장애 정도가 경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 양육

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변인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녀의 장애 정도였다. 자녀의 장애 정도가 1급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보다 3급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상숙(2003)의 정신 지체 정도가 경할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며, 다루기 더 쉬운 기질의 자녀일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게 한다. 이는 Coleman과 Karraker (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정도가 3급인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인 장애 자녀보다 부모 의존도가 낮고, 따라서 부모들은 그로 인한 부담감을 적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경중의 장애를 가진 자녀일수록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어려움을 덜 겪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는 물론이고, 장애아 양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자녀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가 최대한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와 교육은 장애아의 발달과 장애아가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교육 및 치료 시설의 확장,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였다. 즉, 아버지가 양육 참여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에 따라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문혁준, 2005; 신숙재, 1997; 이승미와 김희진, 2005; 최형성, 2002; 한유미, 2003). Belsky와 Vondra(1989)가 남편의 협력이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더욱 유능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시사한 것과 같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장애아를 양육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지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참여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발달 장애아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이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참여로 장애아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의 안녕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장애아의 양육에 대한 동기 부여가 선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장애아 자녀의 양육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요구도 조사와 그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발달 장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모든 장애아 어머니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아의 양육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장애 범위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배부된 설문지 중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의 비율은 60%였다. 물론 장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회수율이 낮을 것은 예상된 일인긴 하였으나, 이런 낮은 사용률은 표본선택편차(sample selection bias)를 갖게 되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의미하게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이 나타났으나, 설명력이 13%였으므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변인들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인구학적 특성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어머니의 대처 행동, 자아 존중감, 양육 태도, 부부 만족도 등의 변인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지각에 의존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참여 정도와 아버지 자신이 보고하는 양육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 변인, 자녀 변인, 아버지 변인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녀의 장애 정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였다. 즉, 장애아의 장애 정도가 1급인 경우보다 3급일 수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높았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발달 장애아 부모의 양육 참여도와 양육 효능감의 정도를 살펴보고, 양육 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인을 밝혀보려고 시도하였다.

둘째,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자녀의 장애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 자녀발달을 위한 치료와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장애아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아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김미옥. (2001). 장애아동 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희경. (2006). 발달장애아동 양육자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서울.
 문정희. (1994). 정신지체아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문진하. (1994).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문혁준. (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박정모, 김은주. (2004). 영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모성 역할 긴장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4(2), 235-242.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1년 1월 10일 출력. <http://www.mohw.go.kr>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에 관한 연구 - 정서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69-81.
 서소희. (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양성화. (2002). 남편의 협력과 어머니 효능감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수원.
 유호용. (2006).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이규옥, 한성희, 박혜준. (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137-163.
 이삼연. (1996). 장애아 모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3), 139-164.
 이숙현. (2008).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남성의 자녀 양육참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승미, 김희진.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43(1), 17-33.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이한우. (2002). 발달장애 아동 가족 지원 특성과 부모 양육 스트레스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차상숙. (2003).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족 기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

- 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한유미. (200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 21(5), 51-59.
- 홍영수, 김재엽. (2003).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과 배우자 지지. *연세 사회복지 연구*, 9, 211-23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lsky, J., & Vondra, J. (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D. Cicchetti, & V. Carlson.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n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et al.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Argentinian,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6.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 efficacy of HIV 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295-305.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Toronto: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 D., Rocissano, L., & Roncoli, M. (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1), 1-9.
- Johns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nauth, D. G. (2001). Marital change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ediatric Nursing*, 17(2), 169-173.
- Radin, N. (1994). Primary-care giving fathers in intact families.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Redefining famil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development* (pp. 55-97). New York: Plenum.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Thoits, T.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 Wallander, J. L., Varni, J. W., Babani, L. V., Banis, H. T., & Wilcox, K. T. (1989). Family resources as resistance factors for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chronically ill and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4(2), 157-173.

Abstract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Parenting Self Efficacy of Mothers With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Jeon, Min-Yeong^{*}, M.A., O.T., Park, Hae-Yean^{**}, Ph.D., O.T.

^{*}Hasang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Dept. of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hild-care involvement of fathers and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mothers who have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and to examine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Methods : The subjects were 190 mothers with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who were receiving treatment in special therapy institution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Index and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 Spearma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 First, the mothers reported a medium level of parenting self-efficacy, as well as a medium level of involvement in the care of their children from their husband. Second, the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ased on the level of their child's disability, and the degree of their husband's child-care involvement. The mothers who have a child with a slight degree of disability and who receive more child-care support from their husband reported higher parenting self-efficacy.

Conclusions : We confirmed that the mothers' level of parenting self-efficacy is related to the level of their child's disability and the degree of their husband's involvement in their child's care. Thus, we new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eatment for handicapped children. After this research, we recognized that the system needs to be changed for the families of handicapped children, and that the program should elicit the father's participation.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led children, Parenting self-efficacy,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